

U.S. Daily Briefing

문의 : 워싱턴무역관(seogil.chang@kotra.or.kr)

2023.03.14.(화) 제23-031호

◆ [Focus] 2024 미국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전망

◆ [What's News]

- (경제동향) 미 2월 CPI(소비자물가지수)와 주요 은행 파산에 따른 현지 반응
- (미-EU) 美 상원, EU와의 핵심광물 협상에 따른 우려 표명
-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친환경)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또다른 탄소 배출량 이슈로 이어져
- (배터리) 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 설립 발표

◆ [Top Headlines] 5대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

FOCUS

(예산안) 2024 미국 대통령 예산안 주요 내용 및 전망

1. 대통령 예산안 개요

- 백악관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총 6.9조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대통령 예산안(President's Budget)을 공개(3.9)
 - 올해 정부가 지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6.4조 달러 대비 약 7.8% 증액
 - 예산안은 '24년 부채를 1.8조 달러(美 GDP 6.8% 수준), 증세 정책을 통한 향후 10년간 부채는 2.9조 달러 축소 전망
 - 재량 지출(discretionary federal spending)은 약 1.7조 달러 규모
 - 국방 관련 예산은 8,864억 달러이며, 비국방 예산은 8,091억 달러
 - '24년 예산안 주요 현지 관심사는 (1) 대외: 우려국 관련 예산 동향, (2) 내부: 물가상승률·재정적자 관리 방안 및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공약

2. 예산안 주요 내용

□ 부처별 예산 개요

- 전체 부처 중 국방부 예산이 가장 많고, 재무부는 부처별 예산 중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인상 폭(+15%)을 기록
 - * '23년 대통령 예산안은 상무부(+31.2%)가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인상 폭 기록
- (국방부) \$8,420억 요청, 전년 比 \$260억(+3.2%) 증액
 - * WSJ: 일부 전문가는 5% 수준인 인플레이션 고려 시, 실질적 감소로 지적
 - 핵무기 현대화 및 핵 억지 전략 강화(\$377억), 태평양 동맹 강화(\$91억), 우크라이나·북대서양조약기구(NATO)·러시아 인근 국가 지원(\$60억)
- (재무부) \$163억 요청, 전년 比 \$18억(+15%) 증액
 - 국세청(IRS) 역량 강화(\$141억), 소외 계층 지원(\$3.4억), 고용 확대(\$3.3억)
- (상무부) \$123억 요청, 전년 比 \$9억(+10.7%) 증액
 - 지역 기술혁신 허브 사업(\$40억), 기후 위성(\$21억), 통계국 지원(\$16억), 국립 표준기술연구소(NIST; \$3.7억) 지원, 산업안보국(BIS; \$2.2억) 예산

< 바이든 대통령의 '24년 부처별 제안 예산 >

(단위 : 10억 달러/%)

연방정부 부처	'23년 의회 지출법안	'24년 대통령 제안 예산	증감률
국방부	816	842	3.2
보건복지부	130.4	145.3	11.4
보훈부	134.9	137.9	2.2
교육부	79.2	90	13.6
주택도시개발부	72.1	73.3	1.6
국무부	63.4	70.5	11.2
국토보안부	61.0	60.4	-1.0
에너지부	47.8	52	8.7
법무부	37.5	39.7	5.9
농림부	26.4	30.1	14.3
교통부	28.7	27.8	-2.9
내무부	17.2	18.8	9.3
재무부	14.2	16.3	15
노동부	13.6	15.1	10.9
상무부	11.2	12.3	10.7

[자료] Budget of the US government; Fiscal Year 2024

□ 조세 정책 개편으로 향후 10년간 3조 달러 재정적자 감축 주장

- (증세) 법인세율 인상, 고소득층 최소 소득세, 자본이득세 등 논의
 - 세수 확대를 위해 법인세율 28%(+7%) 인상 및 장기 투자수익에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GT) 세율 39.6%(+19.6%) 인상 방안 제시
 - 미국 내 상위 0.01% 자산보유자에 최소 25% 세율 적용 주장
 - 연 소득 40만 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 39.6%(+2.6%) 인상 및 사회보장제도(Medicare) 세율 5%(+1.2%) 인상 제시

<조세 정책별 세입 효과>

조세 정책	10년간 세입 효과 (단위 : 10억 달러)
법인세율 21→28%로 인상	1,325.8
고소득층 사회보장제도 세율 3.8→5%로 인상	650.0
국제 최저법인세율(15%) 도입	549.0
상위 0.01% 고소득층에 25% 최저세율 도입	436.6
기업 자사주 매입 환매에 대한 세율 인상	237.9
40만 달러(공동 45만) 이상 최고 소득세 37→39.6% 인상	235.3
자본 소득 과세 변경	213.9
화석연료 세제 혜택 종료	30.8
이자의 경상소득 과세	6.5
디지털 자산 채굴에 에너지 소비세 부과	3.5

[자료] Bloomberg Government

3. 향후 전망

□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의장과 美 '24년 예산안 논의 전망

- '22년 중간선거 승리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 예산안 처리 권한을 가진 공화당은 정부 지출 축소를 통한 재정적자 감축을 주장
 - 美 연방정부는 1월, 부채한도 상한(\$31.4조)에 도달한 이후 특별 조치를 시행하며 의회에 6월 초까지 한도 인상을 촉구했지만,
 - 일부 공화당 의원은 공화당 의견이 관철된 '24년 예산안 집행 이전까지 채무 불이행 우려 해소 노력에 동참하지 않겠다며 행정부와 대립
 - 공화당의 자체적인 예산안은 미공개됐으나, 매카시 하원 의장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증세안을 비판

- (NYT)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첫 상·하원 분할 의회 대형 과제
 - 지난 2년 동안 행정부는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주요 정책들을 실현할 수 있었으나, 과거 많은 행정부가 직면했던 분할 의회에 따른 어려움을 직면할 것으로 전망

□ 향후 일정

- 블룸버그, 이전 예산안 처리 관행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 일정 발표
 - (3~4월) 예산 요청 관련 의회 청문회를 통해 부처 관계자 증언 취합
 - (4.15) 상·하원의 예산 결의안 채택 마감일
 - (5~9월) 양원 예산담당자(Appropriations)의 지출 청구서 작성
 - * 양원 지도부는 이 과정에서 예산 결의안 없이도 최고 지출 한도 합의 가능
 - (9.30) 예산안 논의 및 회계연도 마감일; 예산 결의안 논의가 지속될 시 이전 회계연도 예산으로 정부 예산 임시 충당 가능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준성
-------	------------

▪ 자료원	백악관 보도자료(3.9), CRFB 보도자료(3.9) 블룸버그(3.10), 뉴욕타임스(3.10) 등
-------	---

□ [경제동향 미 2월 CPI(소비자물가지수)와 주요 은행 파산에 따른 현지 반응

- (개요) 노동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발표
 -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은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기 대비 6.0% 상승했으며 전월 대비로는 0.4%p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202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인상 폭을 보인 것이라고 분석하며, 변동성이 높은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도 전월 대비 0.1% 하락하며 2021년 말 이후 최저치 기록
- (상세) 2월 근원 CPI 상승률의 주요인으로 주택 임대료 상승 지목
 - 보고서는 2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감소의 원인을 난방비 하락, 의료 서비스 및 중고차 가격의 하락으로 분석
 - 2월 CPI 및 근원 CPI 상승률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주택 임대료가 전월 대비 0.8%, 전년 동월 대비 8.1% 상승한 것으로 지목
- (금리 전망) SVB 등 은행 파산과 경제 동향에 따른 언론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년간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최근 지방 은행 파산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하며, 오늘의 완화된 CPI 발표로 이후 연준의 금리 인상 접근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
 - 또한 투자자들은 SVB 파산으로 연준의 3월 금리 인상률 계획이 예상(0.5%p)보다 낮거나(0.25%p) 보류할 가능성을 예상하며 시장의 불안감 해소가 우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인덕
■ 자료원	노동통계국(3.14), 월스트리트저널(3.14) 등

□ (미-EU) 美 상원, EU와의 핵심광물 협상에 따른 우려 표명

- (개요) 상원 Ron Wyden 재정위원장, EU와 핵심광물 협상에 우려 표명
 - 폰테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의 백악관 회동(3.10) 이후, 백악관은 유럽산 핵심 광물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 대상 포함을 위한 공식 협상 즉시 착수를 보도
 - 이와 관련해 미 상원 재정위원장은 추진 중인 EU와의 무역협정과 관련 “전통적인 자유무역협정(FTA)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한을 통해 우려 표명
- (상세) 행정부의 무역협정 협상 개시 이전 의회를 통한 승인 절차 강조
 - Ron Wyden 재정위원장은 기존 14개국과 협상 중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무역협정 역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상호 긴밀한 협의, 투명성 제고, 무역협정서의 제출과 승인에 대한 공통된 이해” 강조
 - 또한 국제 무역의 광범위한 문제에 대해 행정부의 단독적인 협정 시도는 헌법에 명시된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국내 입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명시하며 의회와 협의 요청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백악관(3.10), 폴리τικο(3.13)

□ (IPEF)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제2차 공식협상 개최

- (개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IPEF 제2차 협상 개최(3.13~19)
 - * IPEF :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for Prosperity
 - 이번 협상은 지난 12월 제1차 협상에 이어, 4개 의제(△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전 분야를 대상으로 분야별 실무협상 및 수석 대표 회의가 진행될 예정

- 미국에서는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가 참여하며, 대표보(Assistant Representative)인 Sarah Ellerman과 Sharon H. Yuan 수석대표가 담당 의제 논의를 위해 참석
- (상세) 4개 의제 모두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 노력
 - '무역' 분야는 1차 협상 이후 세부 분야 간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정문 구조 및 구성요소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향후 논의 방향을 구체화할 예정
 - * 무역분야는 디지털, 무역 원활화, 노동, 환경, 농업, 경쟁, 투명성, 포용성, 경제협력 등 9개 세부 분야 중심으로 논의 진행
 - '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는 지난 2월 특별협상(인도)에서의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문안별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할 예정
 - 인사이드트레이드는 미국이 일부 노동 우선순위를 다루는 디지털 무역에 대한 협상문과 신속한 대응 메커니즘을 포함할 수 있는 노동 관련 협상문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김준희

▪ 자료원 | USTR([2.24](#)), 산업부 보도자료([3.13](#)), 인사이드트레이드([3.8](#))

□ [친환경] 인공지능(AI) 산업 성장, 또다른 탄소 배출량 이슈로 이어져

- (개요) 블룸버그는 미국 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이 탄소 배출량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두 가지 문제점 지적
 - 미국 내 AI 산업의 급성장으로 AI 학습에 사용되는 전력량과 배출되는 탄소량이 명확히 분석되지 않았고, AI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원(발전소) 유형별 탄소 배출량 분석도 부족하다고 지적
 - * AI 단일 모델 학습에 드는 전력 소모량 = 일반 가정용 컴퓨터 100대의 연간 전력 소모량
- (상세) 투명성 분석 부족과 발전소 유형에 따른 탄소 배출량 분석 미흡
 - 사샤 루치오니(Sasha Luccioni) 연구원은 AI 모델 학습 시 필요한 전력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 논문에서 단일 AI 프로그램 학습에 탄소 배출량은 약 연간 120가구의 전력 소비량과 맞먹는다고 주장

- 또한, AI 학습 시 사용되는 에너지의 출처에 대한 비교, 특히 화석 발전소와 친환경 발전소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쓸 때 발생하는 발전소 유형별 탄소 배출량 비교가 어렵다고 지적

○ (전망) 기업의 탄소중립 공약 이행을 위한 연구 및 투자 약속

-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AI 기업은 성명을 통해 2030년까지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의 탄소중립과 AI 기술을 융합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약속
- 엠마 스트루벨(Emma Strubell) 카네기멜론대학 교수는 AI 산업의 전력 소모와 탄소 배출량에 관한 연구 강화 외에도 AI의 꾸준한 재교육과 업데이트의 필요성 강조

▪ 작성자	워싱턴무역관 이인덕
▪ 자료원	블룸버그(3.9)

□ (배터리) 폭스바겐, 캐나다 온타리오에 배터리 공장 설립 발표

○ (개요) 폭스바겐 그룹, 캐나다 온타리오 배터리 공장 설립계획 발표(3.13)

- 온타리오 남부 세인트 토마스에 위치할 이 공장은 유럽 외 권역에 세워지는 폭스바겐 그룹 최초의 배터리 공장이 될 것으로 전망
- 2027년부터 생산이 개시되고, 폭스바겐 그룹의 배터리 자회사인 PowerCo에서 운영할 예정

○ (배경) 폭스바겐, 북미 내 전기차 공급망 거점 확보 노력 지속

- 폭스바겐 그룹은 작년 캐나다 정부와 협약을 맺고 생산거점 물색과 더불어 핵심 광물 조달 등 공급망 협력까지 추진
- 폭스바겐 그룹은 생산 및 R&D 역량 확충을 위해 북미에 향후 5년간 71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22.3.21)
 - * 기존 채터누가(미), 푸에블라(멕시코) 공장의 전기차 생산 전환 등 포함
- 최근 스카우트(Scout)* 브랜드로 생산할 전기 SUV 및 픽업트럭 생산거점으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블리스우드를 낙점(23.3.3)
 - * 과거 미국에서 생산된 오프로드 차량으로 '21년 폭스바겐 그룹이 브랜드 권리 인수

- (반응) 캐나다 최대의 자동차 산업단지 형성 기대
 - 온타리오 경제개발국 관계자는 캐나다가 전기차 공급망 후발주자에서 선두 주자로 빠르게 도약하게 할 모멘텀이라 평가
- (전망) 폭스바겐 그룹, 북미 내 공급망 거점 확보 지속 예정
 - 그룹 내 타 브랜드인 아우디도 미국 내 전기차 생산거점 물색 중
 - * 단, 아우디 CEO는 단독공장보다는 그룹 타 브랜드와 공유가 유력하다 밝혀(2.24)
- (비고) 현재 폭스바겐이 북미에서 생산 중인 ID.4는 SK온 조지아 공장으로부터 배터리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짐

▪ 작성자 | 워싱턴무역관 장석일

▪ 자료원 | 폴리티코프로(3.13), 워싱턴포스트(3.13), CarScoop(2.24), 폭스바겐 미디어룸(3.13) 등

Top Headlines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Wall Street Journal	<p>Regional Bank Stocks Rally Following Monday Rout (“월요일 폭락” 지역은행 주가, 강세 전환)</p> <p>주요 지역은행 주가, 최근 3개년 최저 기록 후 회복세. 금융당국의 긴급조치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킨 것으로 분석.</p>
The Washington Post	<p>Russian jets force down U.S. surveillance drone over Black Sea (러시아 전투기, 미국 정찰 드론 흑해에서 추락 유도)</p> <p>러시아의 Su-27 전투기 2대가 미 공군 소속 MQ-9 무인 드론과 물리적 충돌. 충돌 전 러 전투기는 드론에 연료를 분사. 미군, 흑해 공해상으로 드론 추락시켜.</p>
New York Times	<p>U.S. Is Said to Open Investigation Into Silicon Valley Bank Collapse (미 당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관련 수사 착수 예정)</p> <p>전문가들은 수사가 파산 몇 주 전에 있었던 은행 경영진의 내부자 거래를 겨냥할 것이라 분석. 그러나 일부 거래들은 1월말 부터 공시됐던 것으로 드러나.</p>
CNN	<p>What's a bank run? 10 moves that led to SVB's demise (뱅크런이란? 실리콘밸리 은행의 몰락으로 이어진 10가지 행보)</p> <p>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은 사실 48시간 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있었던 연준과 은행 경영진의 결정들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p>
USA Today	<p>Facebook, Instagram parent company Meta to lay off another 10,000 workers (메타, 1만명 추가 정리하고 예정)</p> <p>메타는 작년에 총 인력의 13%에 해당하는 11,000명의 직원을 정리하고한 바 있어... 현재 테크 분야에서 2023년 한해에만 약 128,000명이 정리되고된 것으로 집계</p>

* 미국 동부시간 3월 14일 16시 기준

Notice

주요 경제 · 통상 일정

3.15(수)	2월 소매 판매율 (Retail Sales)
3.15(수)	2월 생산자물가지수 (Producer Price Index)
3.16(목)	2월 신규주택착공 (Housing Start)

□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 주요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리포트** (과거 리포트 : [☞헤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3-08	美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방안 주요 내용	2023.03월
US23-07	2023년 바이든 정부의 통상정책 의제 주요 내용	2023.03월
US23-06	2022년 미국 수출입무역 동향 및 현지반응	2023.03월
US23-05	美 바이아메리카 규정 면제 사례 현황 업데이트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4	미국 바이아메리카 특혜 지침 개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3	북미무역협정 자동차 원산지 규정 분쟁 판결 결과 및 시사점	2023.02월
US23-02	미국 컨테이너 해운 현황 및 2023년 글로벌 동향 전망	2023.01월
US23-01	현지 기관이 전망하는 美 118대 의회 중대 정책의제	2023.01월

◆ 경제통상 이슈에 대한 워싱턴무역관 심층 르포, **기획조사** (과거 보고서 : [☞헤드림 심층보고서☜](#))

발간번호	제목 (※클릭하면 이동합니다)	발간시기
US22-기 획7	미국의 바이오제약 산업 육성 정책과 시사점	2023.01월
US22-기 획6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본 미국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심층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5	2022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및 시사점	2022.12월
US22-기 획4	미국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22.11월

◆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 **코트라 인터뷰 시리즈** (과거 인터뷰 : [☞유튜브 KOTRA TV☜](#))

인터뷰번호	제목	바로가기
코인시-9 (2023.3월 예정)	 <p>"탄소 배출량이 가장 적다는 원자력 발전!" 한국수력원자력 이종석 전 워싱턴센터장 글로벌 탄소 감축 로드맵에서 원자력 발전은 왜 중요할까?</p>	COMING SOON
코인시-8 (2023.2.22)	 <p>"미국 주류 독점 공급, 아로 나야 나!" 한국 처음처럼부터 일본 시케, 중국 주류까지 500여종 술을 독점 공급하는 미국 주류왕 황원균 회장 인터뷰</p>	